

구시로 습원

구시로 습원에는 희귀하고 고유한 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두루미(학명: *Grus japonensis*) 집단이 일본에서 유일하게 서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빙기부터 이 지역에 존재하는 종도 있습니다. 이 원시 저지대는 일본 최대의 습원을 형성하고 있으며, 원시 저지대의 환경은 약 6,000 년 전에 해수면이 낮아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구시로 습원은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람사르협약은 습지 보존을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빙기

약 3 만 년 전 (위스콘신 빙기라고 불리는) 최종빙기 중에서도 가장 추운 시기 동안 해수면은 현재보다 100m 나 낮았습니다. 당시에는 육교가 사할린섬을 통해 홋카이도와 유라시아 대륙을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물들이 대륙에서 홋카이도로 건너왔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기온이 상승하자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상승해, 현재 구시로 습원 지역은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바다의 변화

약 6,000 년 전부터 기온과 해수면이 다시 낮아지며 이 저지대는 육지가 되었습니다. 선사 사회의 사람들은 구시로 습원 주위에 있는 고지대를 따라 패총을 남겼습니다. 이 패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수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데, 과거에는 해안선이 더 내륙 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해안선이 후퇴한 뒤에는 몇 개의 호수와 연못이 남았습니다.